

#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 - 개인사업자 창업 및 영업 실태 위주 -

### 목 차

#### I. 국내 치킨산업 일반 및 구조

1. 소비 및 가격 구조
2. 유통 구조

#### II. 치킨전문점 현황 및 창·폐업 특성 분석

1. 시장현황 및 수요기반
2. 창업현황
3. 매출 및 영업이익
4. 경쟁강도 분석
5. 휴·폐업 및 생존기간 분석
6. 지역별 치킨전문점 현황

#### III. 주요 이슈 및 창업 지원정보

## I. 국내 육계산업 현황 및 유통구조

### 1. 육계 소비규모 및 산업특성

#### ■ 닭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나, 공급 확대로 가격 변동성 불안정

○ 식생활 서구화 및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닭고기 소비량 지속 증가 추세

- 육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

-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6.9kg)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소고기 소비량을 추월하였으며, 2011년 현재 11.4kg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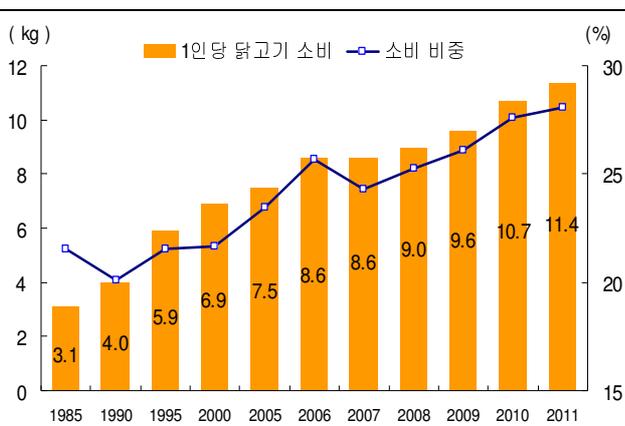
- 2005년 이후 닭고기 소비량은 1.5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7.2%에 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닭고기 소비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미국의 29%)으로 수요확대가 지속될 전망

○ 육계 산업<sup>1</sup>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2조원으로 추정

- 소형업체의 난립과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정확한 산업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도계량<sup>2</sup>과 생계 가격을 토대로 추정한 시장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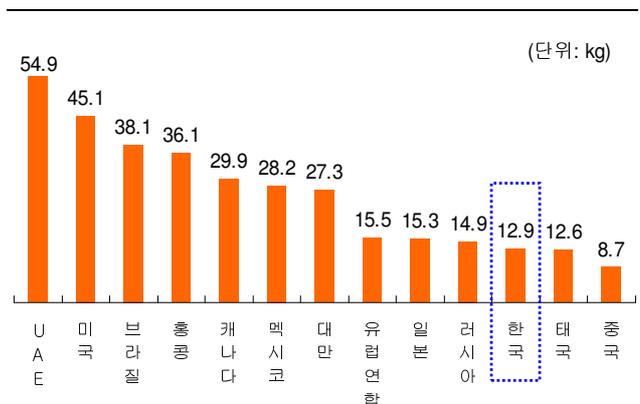
[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추이 ]



자료 : 농림수산식품

주 : 소비비중(%) = (닭 소비량) / (돼지+소+닭고기 소비량 합계)

[ 국가별 닭고기 소비량 비교 ]



자료 : 한국계육협회, FAS(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

주 : 소비량은 지육(도축 후 내장을 제거한 닭고기) 기준

<sup>1</sup> 양계산업의 한 부분으로 식용을 위한 계육을 생산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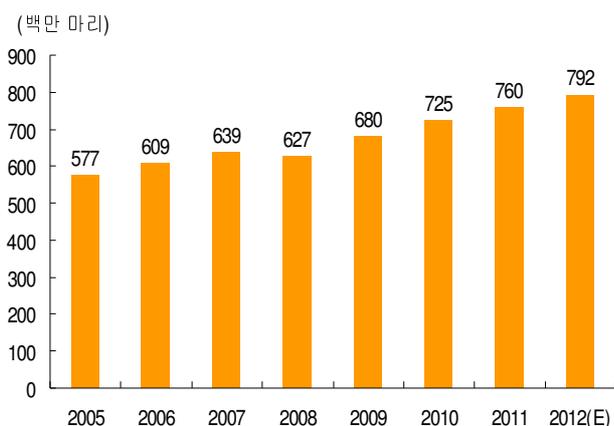
<sup>2</sup> 도계량(도계수수): 도축된 가축의 수

- 도계량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였던 2008 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도계량은 2005 년 577 백만수에서 2011 년 760 백만수로 32% 증가하였으며 2012 년에는 792 백만수로 추산
- 도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에 따른 생계 시세의 하락으로 2012 년 육계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 예상
  - 2012 년 생계 평균시세가 전년대비 15.7% 감소하면서 육계산업 규모는 약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공급 불안정으로 육계 유통가격의 높은 변동 특징

- 육계는 부화 후 40 일 내외로 상품화 가능. 따라서, 농업상품 중 비교적 상품화 기간이 짧은 특징으로 인해 육계생산 과잉 및 과소가 단기간 내 반복될 수 있음
-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2003 년, 2006 년, 2008 년 각 시점에 육계가격이 급락하였으나, 인플루엔자 궤멸 후에는 살처분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빠르게 가격 회복
- 점유율이 큰 계열화 업체가 아닌 중소 유통업자들에 의해 육계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구조도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

[ 닭고기 도계량 추이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육계 가격 추이 ]



자료: 한국계육협회

■ 산업선진화 정책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규모 및 점유율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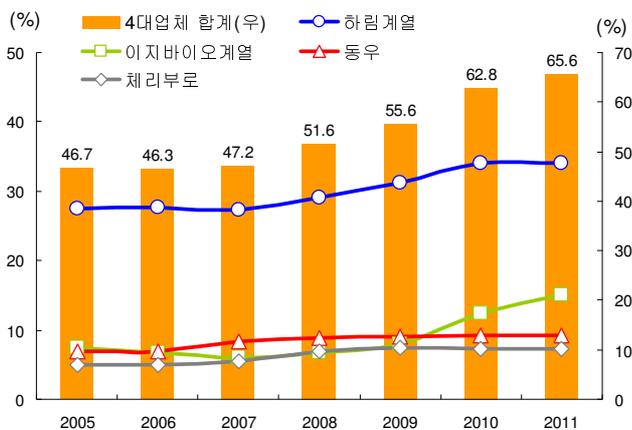
○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육계 산업 선진화를 위한 수직계열화<sup>3</sup> 추진

-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형 수직계열화 방식으로 산업형태 전환 추진
  - 수직계열화 업체는 사육에 필요한 자재를 농가에 제공하고, 위탁농가는 자체 시설에서 사육한 양계를 계열화 업체에 출하한 뒤 위탁 수수료 수취

○ 수직계열화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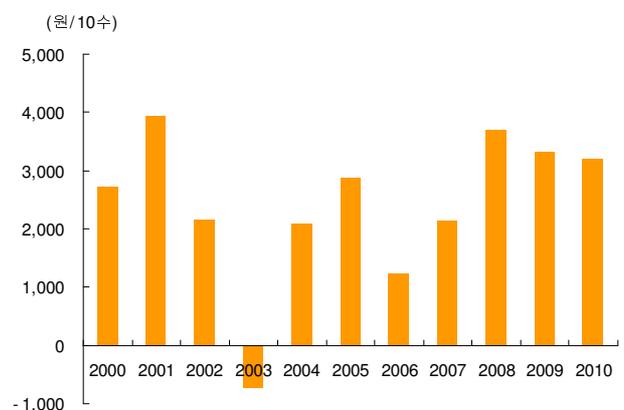
- 업체간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상위권 기업의 대형화와 집중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과점체제 강화
  - 하림 계열, 이지바이오 계열, 동우, 체리부로 등 4대 계열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5년 46.7%에서 2011년 65.6%로 확대
- 2011년 모든 도축장과 판매장에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되면서 대형 계열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추세
  - 1일 5만마리 이상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포장유통 의무화’제도가 전면시행 되면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사들의 시장지배력 확대 전망

[ 주요 4개 업체 점유율 추이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육계 10마리당 평균 수익성 추이 ]



자료: 통계청

<sup>3</sup> 하나의 업체가 양계 사육부터 최종 육계제품 생산까지 연관 산업의 경영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농가들이 대형 업체의 수직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육계 농가의 사육 규모도 대형화 추세
  - 가구당 사육수수는 2006년 33,077 마리에서 2012년 44,385 마리로 34.2% 증가
    - 동 기간 중 △1만 마리 미만 사육 농가 비중은 17.9%→10.0%, △1~3만 마리 사육 농가는 39.1%→32.2%로 감소한 반면, △3~5만 마리 사육 농가는 24.3%→26.6%로,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18.7%→31.2%로 비중 확대
  -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료 및 병아리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 평균수익 하락
    - 국제곡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료 및 가축 비용 상승으로, 육계 10 마리당 평균 수익이 2008년 3,696 원에서 2010년 3,215 원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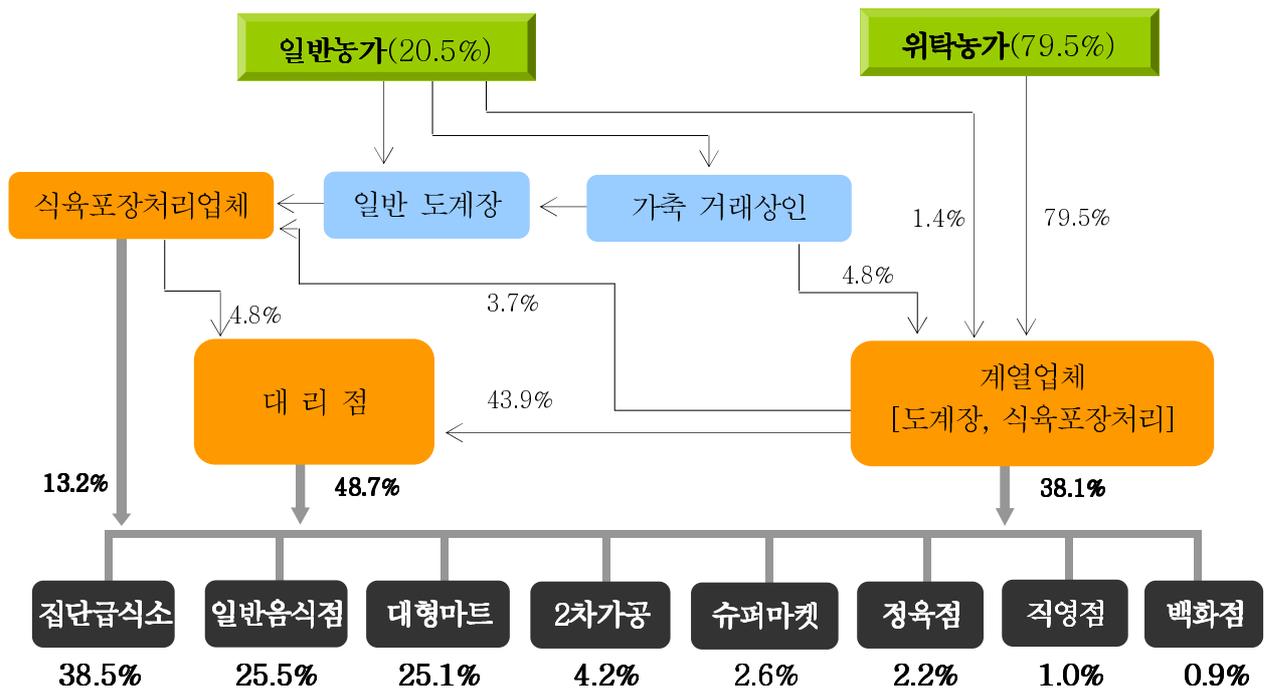
## 2. 닭고기 유통 구조

### ■ 계열화 업체의 유통시장 장악

- 닭고기 유통물량의 약 85%는 계열화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계열화 업체의 유통물량은 대부분 위탁농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일반 농가나 가축거래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음
  - 계열화 업체의 유통물량이 증가하면서 가축거래상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한 유통물량은 감소 추세
- 도매단계에서는 대리점을 통한 유통 비중이 가장 크고, 소매에서는 집단 급식소,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순
  - 계열화업체 도축물량(85.7%) 중 대리점 유통 비중은 43.9%이며, 소매업체 직접 유통 비중은 38.1%
  - 소매단계에서의 판매 비중은 집단 급식소 38.5%, 일반 음식점 25.5%, 대형마트 25.1%, 기타 10.9%로 나타남

- 학교 급식의 보편화 등으로 집단 급식소를 통한 닭고기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닭고기 주요 유통 경로 ]



자료: 축산물 품질평가원

- 소매단계 중 프랜차이즈 및 일반 치킨점에서 수요되는 닭고기는 약 1.9억 마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sup>4</sup>
  -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부분 계열화 업체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닭고기를 공급받고 있음
    - 계열화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닭고기를 제공

<sup>4</sup> 치킨점 매출액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간 소비량으로 일부 수입산을 포함한 수량

## II. 치킨전문점 현황 및 창·폐업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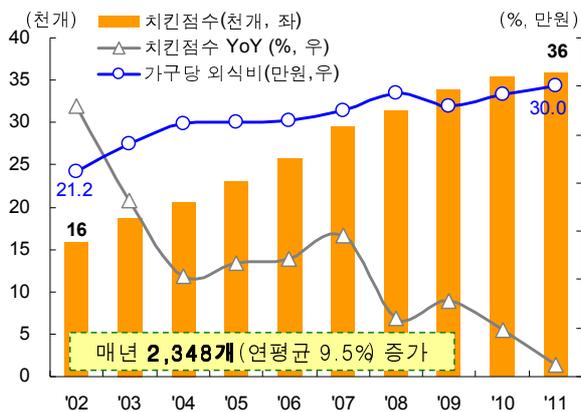
### 1. 치킨전문점<sup>5</sup> 시장현황 및 수요기반

#### ■ 외식산업 성장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체는 매년 2천3백개씩 증가

○ 현재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은 약 36천개로, 개인사업자의 1.8%, 음식점의 7.0%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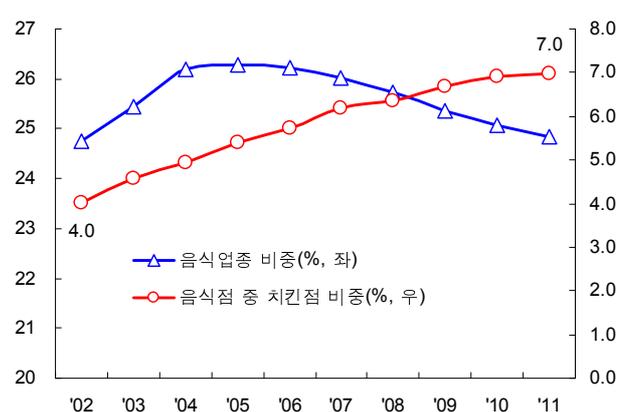
- 간식 및 배달문화 성장으로, 2002년 이후 치킨전문점 수는 연평균 9.5% 증가
  - 지난 10년간 전체 개인사업자 수는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며, 음식점 수도 가계의 외식비 증가와 더불어 3.0% 증가
  - 국내 외식산업 중 ‘간식 및 배달산업’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동기간 치킨전문점 수는 9.5%의 높은 증가세<sup>6</sup> 기록
-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200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음식점 중 치킨전문점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02년 4.0% → '11년 7.0%)

[ 국내 치킨전문점 영업 현황 ]



자료: KB 내부자료(각 기말기준),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연간)  
 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외식 지출비(배달음식 포함)

[ 산업내 치킨전문점 비중 추이 ]



자료: KB 내부자료(2002~2011) / (각 기말 기준)  
 주: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종 비중, 음식업종 중 치킨점 비중

<sup>5</sup>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전문점 현황 분석. 치킨전문점 분류는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9차) 체계를 감안하였으며, 분류가 모호한 경우 KB자체 기준(▷호프점 등 타업종을 병행하나 주판매 품목이 치킨인 업체, 닭강정, 화닭, 과닭, 불닭, 통닭, 바베큐 등 포함. ▷닭갈비, 찜닭, 닭발, 삼계탕, 닭갈국수, 닭도리탕, 닭꼬치, 백숙, 윗닭, 닭개장, 닭발, 닭고기, 닭해물, 닭죽, 닭불고기, 닭유통점, 햄버거 병행점 등 제외)을 적용

<sup>6</sup> 통계청은 2008년 제9차 표준산업분류 체계 발표시, 최근의 외식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8차 이전) 항목에서 △치킨전문점(9차)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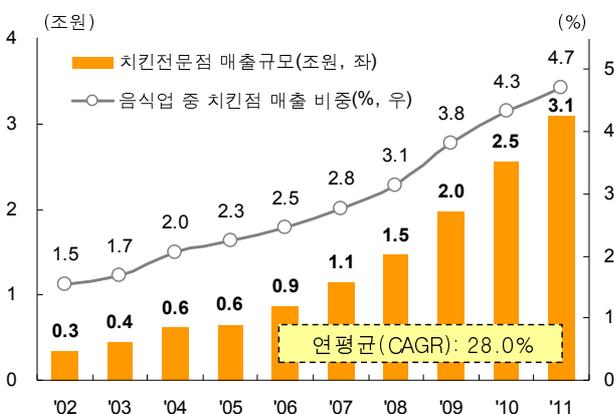
■ 가계의 치킨 수요가 지속되며, 국내 치킨시장은 3.1조원 규모로 성장

- 지난 10년간 음식업종의 매출규모는 2.3배 증가한 반면, 국내 치킨시장은 총 매출액 3.3천억원 규모에서 3.1조원 규모로 약 9.2배 증가
  - 치킨시장 매출실적은 2006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포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가파른 성장세 지속
    - 2005년까지 연평균 900억원 단위로 증가하던 치킨시장은, 수요 및 점포수 증가로 2008년까지 연간 2,800억원씩 성장하였으며, 이후 치킨전문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음에도 2011년까지 매년 5,400억원씩 증가
  - 음식업종 총 매출실적 중 치킨전문점 매출비중이 증가세('02년 1.5% → '11년 4.7%)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08) 및 조류독감 파동('03~'08기간 중 248일)에도 가계의 치킨소비 및 국내 수요는 지속 성장한 것으로 보임

■ 수요성장 보다 빠른 치킨전문점 증가 속도로 경쟁강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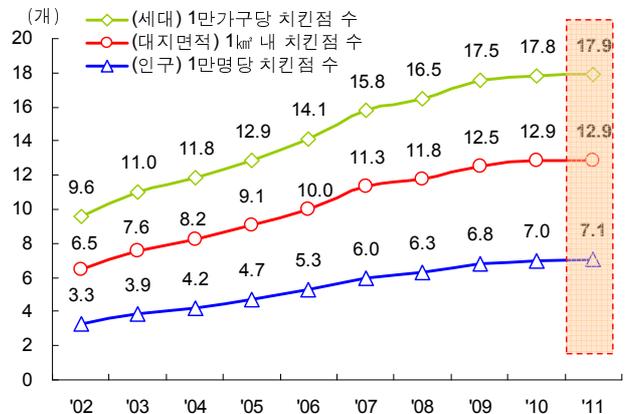
- 현재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국내 인구 1만 명당 7개, 1만 가구당 18개로, 10년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9%, 7.2% 성장
  - 반면, 동기간 주민등록 인구수와 세대수는 연평균 0.6%, 2.2% 증가에 그침

[ 국내 치킨시장 규모 ]



자료: KB 내부자료  
주: 연간 매출액 기준

[ 수요기반 대비 치킨시장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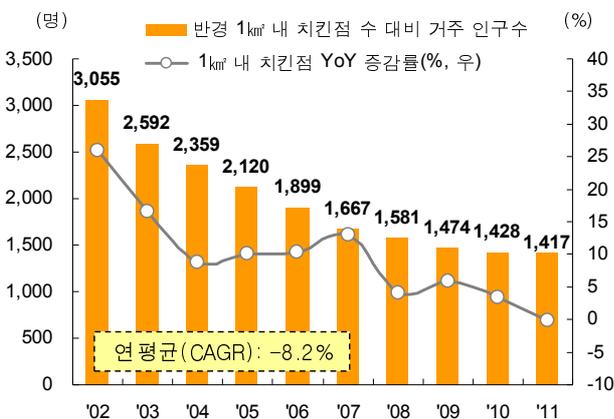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기준), 국토지리정보원, KB 내부자료  
주: 국토면적에서 지목상 전·답·임야·도로 등을 제외한 대지(주택, 사무실, 쇼핑, 문화시설 등 주요 거주지) 면적 기준

- 한편, 주거 및 근무지 1km<sup>2</sup> 내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평균 13개로, 10년전 7개에 비해 2.0배 증가(연평균 7.9% 성장)
  - 임야 및 도로면적을 포함할 경우, 1 km<sup>2</sup> 내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평균 0.36개로, 10년전 0.16 개에 비해 2.2 배 증가(연평균 9.5% 성장)
- 수요성장 보다 빠른 속도로 치킨전문점이 증가하면서, 점포 반경 1km<sup>2</sup> 내 치킨점 수 대비 거주인구수<sup>7</sup>는 10년전에 비해 2.2배 감소하여 경쟁강도 심화
  - 10년전에는 치킨전문점 1 개에 대하여 반경 1 km<sup>2</sup> 내에 3,055 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반경 1 km<sup>2</sup> 내에 1,414 명으로 감소

■ 국내 프랜차이즈 열풍으로 치킨산업 양적 성장

-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열기(가맹점 2.6배 증가)가 확산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은 2002년 9천개(프랜차이즈 비중 57%)에서 25천개(71%)로 약 3배 증가
  - '02년 국내 프랜차이즈 매출의 0.4%에 불과했던 치킨전문점이 2.5%까지 성장
    - 지난 10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45 조원 규모에서 95 조원 규모로 2.1배 증가한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의 시장규모는 0.2 조원에서 2.4 조원으로 12.8 배 증가(일반 치킨전문점 매출규모는 4.7 배, 업체수는 1.5 배 증가)

[ 치킨시장의 실질수요 및 경쟁강도 ]



자료: KB 내부자료,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안전부  
 주: 대지면적 기준, 거주인구 기준(유동인구 미포함)

[ 프랜차이즈 치킨시장 현황 ]



자료: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보도, KB 내부자료

<sup>7</sup> 점포 반경 1km<sup>2</sup> 내 치킨점 수 대비 거주인구수: 행정구역 내 치킨전문점수 대비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  
 \* 산식 = (행정구역내 인구수 / 행정구역내 대지면적) ÷ (행정구역내 치킨전문점수 / 행정구역내 대지 면적)

## 2. 치킨전문점 창업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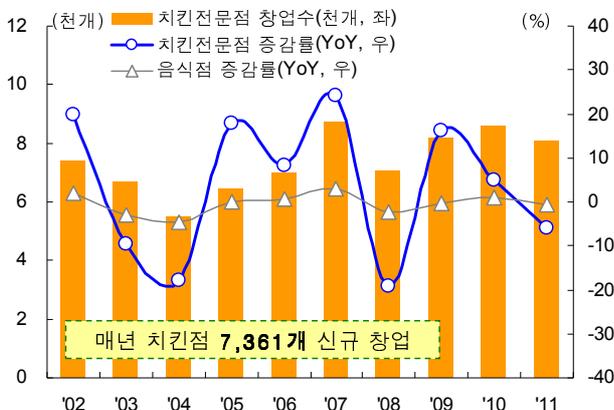
### ■ 지난 10년간 매년 7.4 천개의 치킨전문점 신규 진입

- 국내 개인사업자 창업이 주로 ‘음식점’과 ‘주점’에 집중되는 가운데, 2002년 이후 지난 10년간 치킨전문점 신규창업이 총 7만 4천여개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 유지
  - 개인사업자 창업 중 음식업종 창업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킨전문점은 진입장벽이 낮고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창업열기 활발
    - 치킨전문점 창업은 음식점 증감률(YoY)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
  - 치킨전문점 창업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과거 10년간 매년 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중 약 29%가 당해연도에 신규 진입한 점포로 구성

### ■ 음식점 창업자 1백명 중 약 7명이 치킨전문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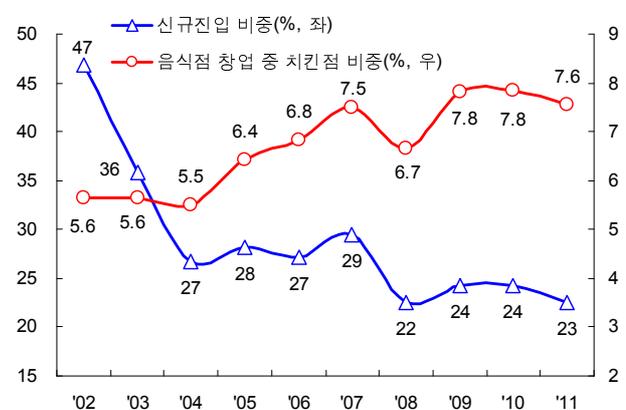
- 2002년 이후 음식점 창업자 중 치킨전문점 창업은 6.7% 비중으로 ‘한식을 제외한 업종군’에서 상위권 점유(음식업 창업자 중 한식 창업은 69% 비중)
  - 음식점 창업자 중 치킨전문점을 선택한 비중은 대체로 증가세(’08년 제외)를 보임 (’02년 5.6% → ’11년 7.6%)

[ 치킨전문점 창업 추이 ]



자료: KB 내부자료

[ 치킨전문점 창업비중 추이 ]



자료: KB 내부자료(2002~2011)

주: 신규진입 비중(%) = (연간 치킨점 창업수) ÷ (연말 치킨점수)

■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20대와 50대 비중 증가

○ 청년층 취업난과 인구 고령화로 20대와 50대의 치킨전문점 창업 비중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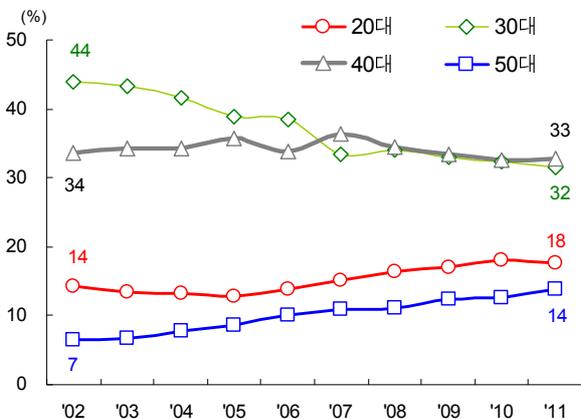
- 은퇴 후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50대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
-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최근 수년간 20대의 치킨전문점 창업 증가
- 한편,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30대~40대 비중이 여전히 과반을 상회하는 가운데, 30대 비중은 10년 전 대비 12%p 하락하며 감소세 지속

■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67%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치킨전문점 창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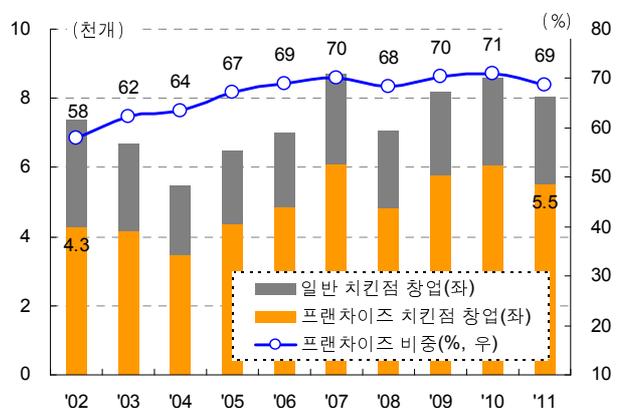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창업 중 프랜차이즈 비중은 10년 전 대비 11%p 상승
- 국내 치킨시장은 브랜드별로 독특한 ‘맛’과 고유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창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의 경우, 독자적인 영업력 확보보다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점포운영, 물류공급, 주문배달 시스템 등) 및 혜택(광고, 마케팅 등)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점도 가맹점 증가의 배경

[ 연령대별 치킨전문점 창업 현황 ]



자료: KB 내부자료(2002~2011)  
주: 창업 당시 연령 기준

[ 영업구조별 치킨전문점 창업 현황 ]



자료: KB 내부자료(2002~2011)  
주: 당해연도 치킨점 창업 중 프랜차이즈 창업 비중(%)

### 3. 치킨전문점 매출 및 영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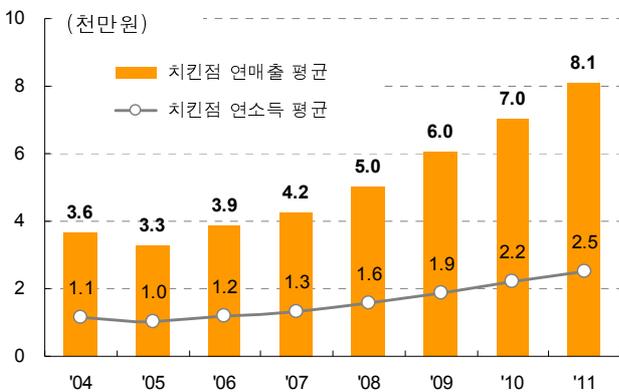
#### ■ 치킨전문점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8천 1백만원의 매출 발생('11년 기준)

- 지난 7년간 치킨전문점 당 연평균 매출은 36백만원에서 81백만원으로 2.2배 증가
  - 음식점업 전체의 연평균 매출은 76 백만원('04년)에서 125 백만원('11년)으로 1.9 배 증가한 반면, 동기간 치킨전문점 매출은 2.2 배 증가하며 이를 상회
- 치킨전문점의 연 매출액은 전체 음식점 평균 보다 약 5천~6천 만원 적은 수준
  - 일반적으로 간식메뉴는 주식메뉴에 비해 '1인당 소비회수(연간)'가 낮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킨소비의 경우 가족 및 소규모 집단 단위의 소비가 주를 이뤄 '1인당 소비단가'도 낮은 수준

#### ■ 치킨전문점 개인사업주의 연소득은 평균 2천 5백만원('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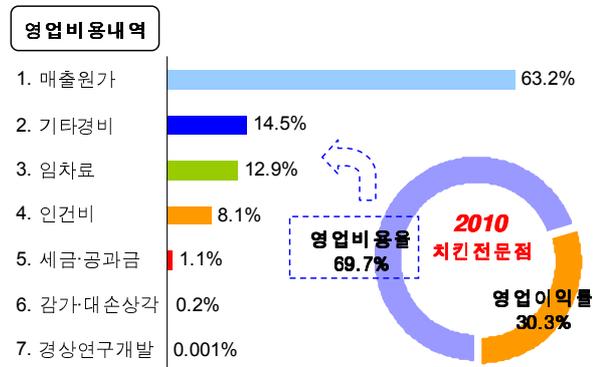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의 영업이익률은 30.3%로, 매출원가·임차료·인건비·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주가 가져가는 순 연소득은 2011년 기준 25백만원
  -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 연소득은 27 백만원으로 치킨전문점에 비해 약 2 백만원 높은 수준에 불과. 음식점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21.8%)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격차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적은 현상 발생

[ 치킨전문점 매출 및 영업소득 추이 ]



자료: KB 내부자료(2004~2011), 통계청  
 주: 치킨전문점 평균 연매출과 평균 영업이익

[ 치킨전문점 주요 재무현황 ]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주: 매출원가(재료매입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 투입된 비용), 기타경비(수도광열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

-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21.8%)이 치킨점(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평균 종사자수(2.9명)가 치킨점(2.1명)보다 더 많아 영업비용 중 인건비(18.6%) 지출 비중이 치킨점(8.1%)의 2배를 상회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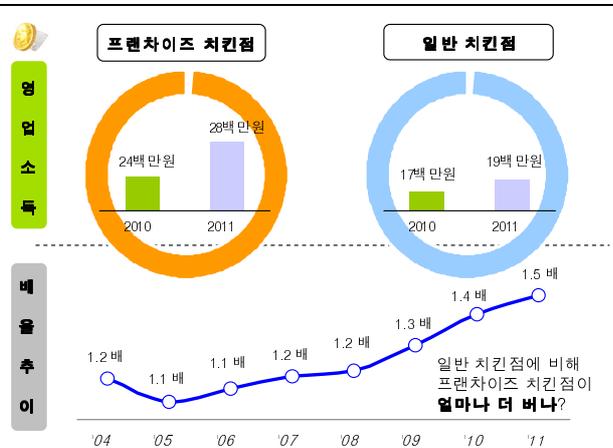
■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소득이 일반 치킨점에 비해 약 1.5배 더 많음

- 프랜차이즈 치킨점은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력과 인지도 영향으로 일반 치킨점에 비해 영업소득이 연간 약 700~9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2011년 기준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영업소득은 28백만원으로 2008년 이후 매년 400만원씩 증가 추세를 보임
  - 반면, 일반 치킨점의 경우, 2011년 영업소득이 19백만원으로 2008년 이후 매년 200만원씩 증가하는데 그쳐, 프랜차이즈 치킨점과 소득격차 확대

■ 커피전문점 보다 치킨전문점 창업자는 약 16백만원 가량 소득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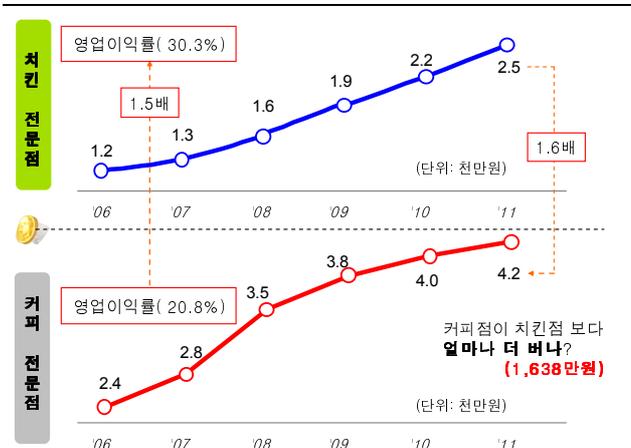
- 커피전문점과 치킨전문점은 국내 개인사업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창업 아이템으로, 두 업종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이 활발하며, 수요기반이 안정된 특징 보유
  - 2011년 기준 커피전문점 평균 영업소득은 42백만원으로 치킨전문점 25백만원에 비해 약 16백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격차는 좁혀지는 추세
  - 두 그룹간 소득격차 발생의 주된 요인은 영업이익률 및 투자금 차이로 추정

[ 영업구조별 소득 현황(치킨전문점) ]



자료: KB 내부자료, 통계청 / 단위: 백만원 배

[ 주요 창업업종 영업소득 비교 ]



자료: KB 내부자료, 통계청 / 단위: 천만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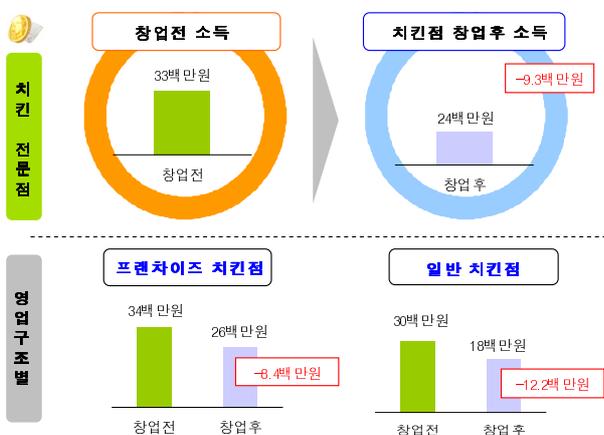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창업자는 창업 후 평균적으로 약 9백3십만원 정도 소득 하락

- 치킨전문점 창업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에서 2011년 치킨전문점을 창업한 급여 소득자들을 분석한 결과, 창업 전 소득이 33백만원이었던 반면, 창업 후 영업소득은 2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치킨전문점 창업자는 창업 전·후를 기점으로 소득 10 분위상 4 분위에서 2~3 분위로 이동
  - 치킨 전문점 영업시 일반적으로 근로에 동참하게 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감안할 경우, 실질소득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창업 후 소득 하락폭은 일반 치킨점 창업자가 12.2백만원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점 창업자 8.4백만원에 비해 약 3.8백만원 더 큰 것으로 조사
  - 두 그룹간 소득격차는 창업 전 400 만에서 창업 후 800 만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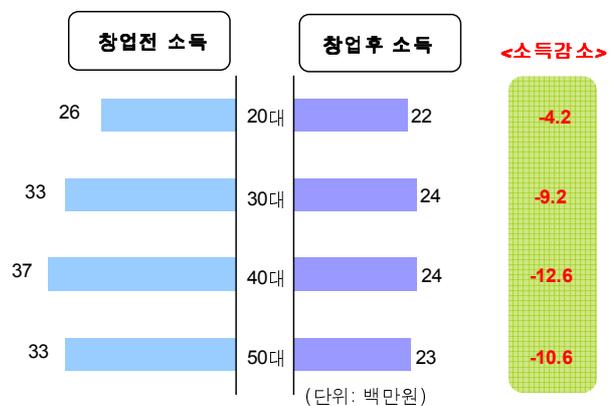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40 대와 50 대의 소득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 치킨전문점 창업 당시 40대였던 급여소득자들의 경우, 연소득이 창업 전 37백만원에서 창업 후 24백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창업 후 소득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 창업후 소득은 비슷한 수준으로, 창업전 소득 격차가 하락폭 결정 요인
- 50대와 30대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소득 하락폭이 1천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

[ 치킨전문점 창업 전·후 소득 비교 ]



[ 연령대별 창업 전·후 소득 비교(치킨점) ]



자료: KB 내부자료(2010~2011), 통계청  
 주: 창업 전 소득(급여소득), 창업 후 소득(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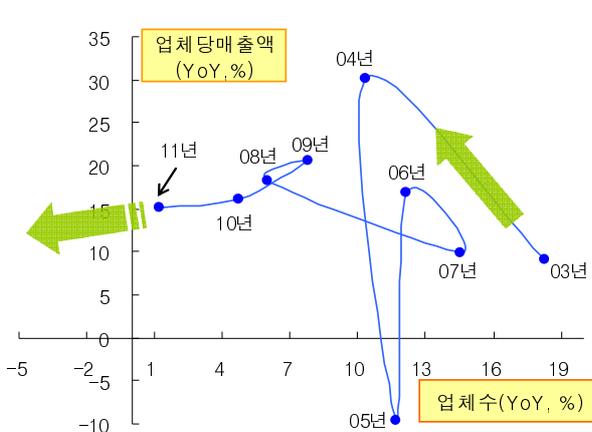
자료: KB 내부자료(2010~2011), 통계청  
 주: 창업 당시 연령기준

#### 4. 치킨전문점 경쟁강도 분석

##### ■ 치킨점 창업 증가로 경쟁강도는 심화된 반면 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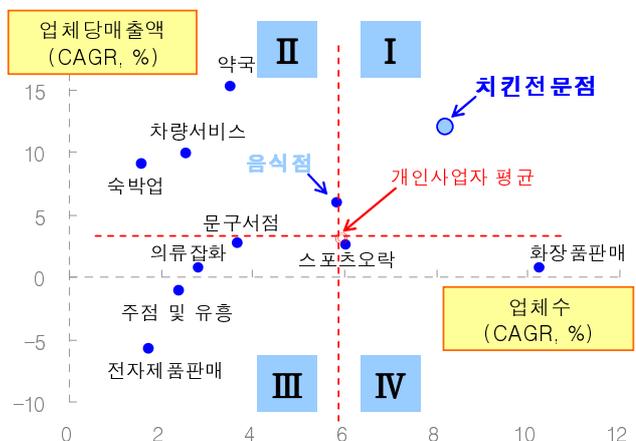
- 2002년 이후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3백개의 치킨전문점이 증가하면서, 국내 치킨시장의 경쟁강도는 연말 영업 중인 업체수 기준으로 2.3배 증가
  - 연말 치킨전문점 수는 2002년 1.6만개에서 2011년 3.6만개로 연평균 9.5%(2.3배) 증가한 반면 동기간 인구수는 연평균 0.6%(1.1배) 증가에 그침
- 2003년 이후 업체수 증가율이 전반적인 둔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09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쟁강도 심화에 따른 치킨산업내 구조조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02년에서 200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인 반면, 2009년에서 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불과
- 수요기반(인구수) 증가속도 보다 공급자(치킨점)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쟁강도가 심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외식문화 확산으로 치킨전문점 당 매출액이 10년전에 비해 3.1배(연평균 13.6%) 증가하여 치킨산업내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 2009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15% 이상의 고성장

[ 치킨전문점 경쟁강도 추이 ]



자료: KB 내부 자료

[ 치킨전문점 경쟁강도 비교 ]



자료: KB 내부자료(2004~2011 연평균 증가율 기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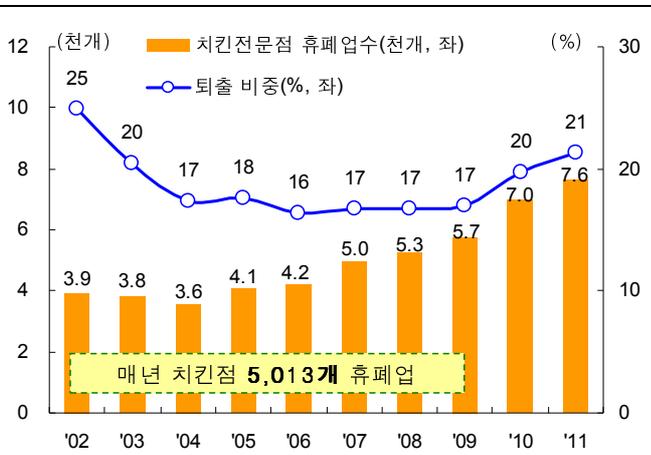
- 타 업종대비 치킨전문점의 경쟁강도는 업체수 및 매출액 증가율이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1사분면(I)에 위치
  - 그러나, 2009년 이후 업체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고성장 상태에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심화될 경우 서서히 2사분면(II)으로 이동할 가능성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현재 수준 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 5. 치킨전문점 휴·폐업 및 생존기간 분석

### ■ 매년 5천여 개의 치킨전문점 휴·폐업

- 국내 치킨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로, 지난 10년간 치킨전문점 휴·폐업 수는 총 5만 여개이며 이 중 41%인 2만개가 최근 3년내 휴·폐업한 치킨전문점
  - 전체 음식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휴·폐업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2009년 이후 치킨전문점의 산업내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 지난 10년간 매년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중 약 19%가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치킨전문점의 퇴출비중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21%에 달함
  - 치킨점 퇴출비중 상승: 17%('04~'08년) → 19%('0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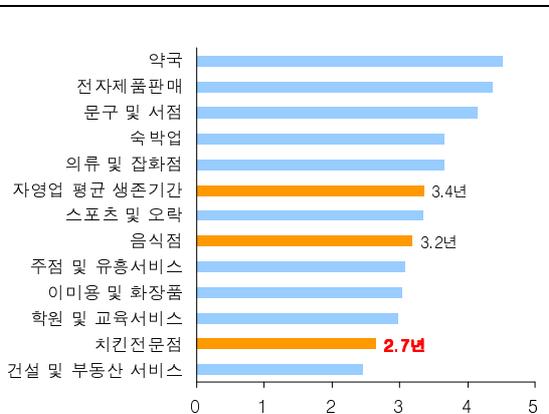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휴·폐업 추이 ]



자료: KB 내부 자료 / 단위 : 천개

주: 퇴출비중(%) = (연간 치킨점 휴폐업수) ÷ (연말 치킨점수)

[ 치킨전문점 평균 생존기간 ]



자료: KB 내부 자료 / 단위 : 년(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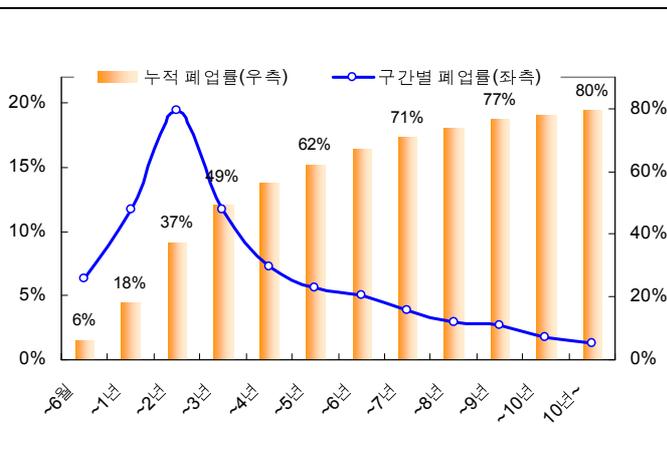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의 평균 생존기간은 2.7 년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3.4 년 보다 열위

- 지난 10년간 휴·폐업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음식점업의 생존기간은 3.2년인 반면, 치킨전문점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2.7년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판단
- 음식점 업종별로는 한정식(4.6 년), 일식(3.6 년), 양식(3.2 년) 등의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치킨점 보다 길었으며, 커피전문점(2.3 년), 휴게음식점(2.3 년) 등의 생존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조사

■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절반 가량이 창업 3년 이내에 휴·폐업 등으로 퇴출

- (누적 휴·폐업률) 2001년 이후 창업한 치킨전문점의 휴·폐업률<sup>8</sup>은 평균 79.5%로 최종 생존비율이 1/5 내외에 불과하며, 절반 가량인 49.2%가 창업 3년 이내에 퇴출
- (구간별 휴·폐업률 추이) 치킨전문점의 휴·폐업률은 창업 후 2년간 급증하며, 3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창업 7년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
- 치킨전문점 창업 후 6 개월 이내에 휴·폐업하는 비율(6.4%)은 전체 개인사업자(7.5%)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창업 1~2 년 기간에 정점(19.4%)을 형성하고 창업 후 3 년까지 두 자리 숫자의 휴·폐업률을 기록하다 점차 완화되어 창업 7년 이후에는 5% 이하로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치킨전문점 창업후 휴·폐업률 ]



자료: KB 내부 자료(2001년 이후 신규 창업자 기간별 휴·폐업 기준)

[ 업종별 휴·폐업률 비교 ]

	1년미만	3년미만	총폐업율
치킨전문점	18.0	49.2	79.5
음식점업	20.2	52.2	81.7
주점·유흥서비스	26.4	62.0	88.7
의류·잡화점	22.2	53.6	79.1
스포츠·오락	18.0	46.0	78.5
전자제품	16.8	44.8	75.7
학원·교육서비스	11.4	36.6	75.3
숙박업	16.4	41.6	73.0
합계	18.5	46.9	75.4

자료: KB 내부 자료 / 단위 :%

<sup>8</sup> 생존기간별 휴·폐업률=기간별 휴·폐업수/기간 중 창업수. 단, 각 영업기간이 생존기간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

- 2001년 이후 창업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최종 휴·폐업률은 75.4%, 음식점업은 81.7%이며, 치킨전문점의 최종 휴·폐업률(누적)은 79.5%로 중간 수준
  - 치킨점 창업 후 3년 이내 휴·폐업률(누적)은 49.2%로 전체 개인사업자(46.9%), 커피전문점(40.5%), 제과점·아이스크림점(37.3%)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체 음식점업(52.2%)과 한식(51.7%)보다는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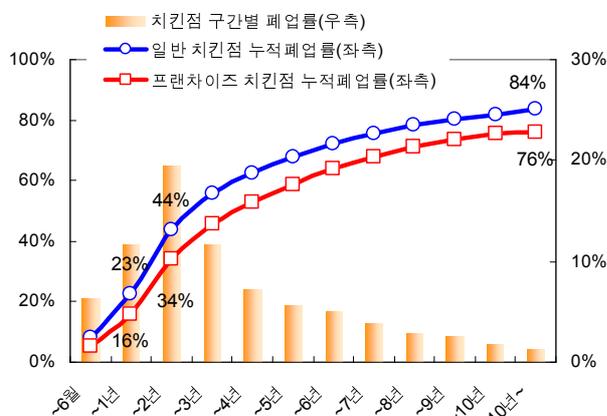
■ 일반 치킨점에 비해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의 휴·폐업률 낮음

- 지난 10년간 휴·폐업한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의 휴·폐업률은 76.2%인 반면 일반 치킨점의 휴·폐업률은 83.6%로 안정성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더 양호
  - 치킨점 창업 후 3년 이내 휴·폐업률(누적)도 프랜차이즈 점의 경우 45.7%로 일반 치킨점(55.6%)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 두 그룹간 휴·폐업률 격차는 창업 후 3년까지 확대된 이후 일정 간격 유지

■ 50대에 창업한 치킨전문점의 휴·폐업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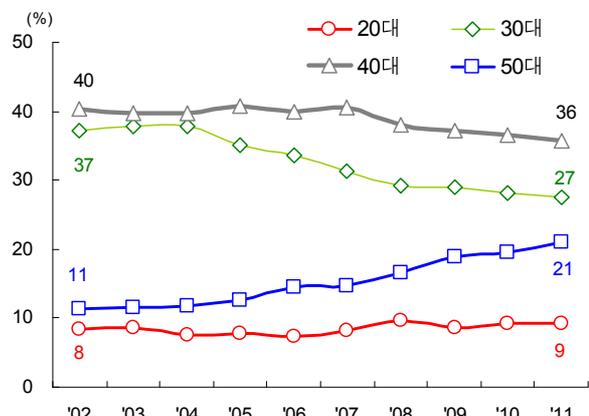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휴·폐업한 치킨전문점 업주들의 창업당시 연령을 분석한 결과, 50대의 휴·폐업 비중이 2006년 이후 증가 추세
  - 2002년 당시 치킨점 휴·폐업자 중 11%에 불과했던 50대 비중이, 2011년에는 21%로 증가하면서, 50대 창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영업구조별 창업후 휴·폐업률(치킨점) ]



자료: KB 내부자료(2001~2012.7) / 단위: %

[ 휴·폐업자의 연령별대별 비중(치킨점) ]



자료: KB 내부자료(휴·폐업 연도기준) / 단위: %  
주: 창업 당시 연령 기준

## 6. 지역별 치킨전문점 현황

### ■ 치킨시장은 업체수 기준 49%, 매출액 기준 74%가 수도권에 집중

- 권역별 시장규모(업체수, 총매출액)는 수도권(48.6%, 73.7%), 경상도(12.0%, 4.4%), 대구·부산(10.8%, 7.1%), 충청도(9.1%, 4.7%), 광주·전라도(8.8%, 4.1%) 순
- 대구·부산·경북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치킨산업이 성숙한 지역으로 멕시카나, 교촌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사업 확장
- 시도별로는 지난 10년간 치킨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4.0배), 부산(3.7배), 대구(3.7배), 경북(3.7배)으로 이들 지역에서 경쟁강도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
- 총매출액은 부산(17.2배), 대구(13.4배), 강원(11.4배), 대전(13.4배) 순으로 증가

### ■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지역은 실질수요 기준 경쟁강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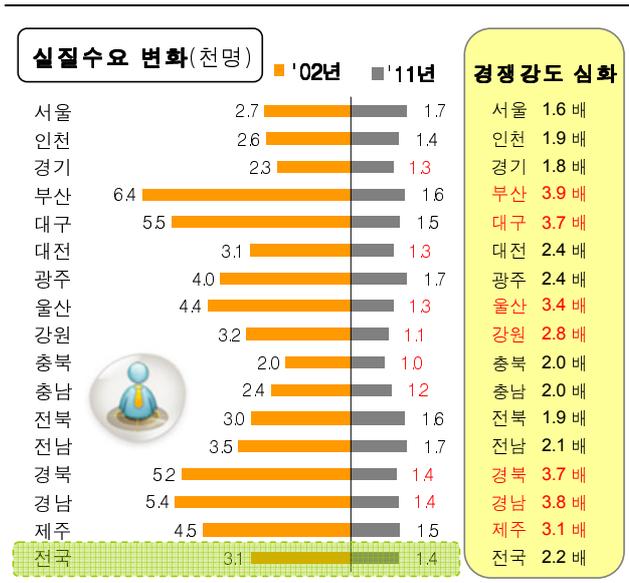
- 실질수요(치킨전문점 반경 1 km<sup>2</sup> 내 치킨전문점 수 대비 거주인구수) 감소로 경쟁강도가 심화된 지역은 부산(3.9배), 경남(3.8배), 경북(3.7배), 대구(3.7배), 울산(3.4배), 제주(3.1배) 지역이며, 경쟁강도 심화가 약하게 진행된 지역은 수도권 및 호남지역

[ 시도별 치킨전문점 시장현황 ]



자료: KB 내부자료  
 주: 매출액 기준 / (단위: 백명, 억원)

[ 시도별 실질수요 및 경쟁강도 변화 ]



자료: KB 내부자료,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안전부  
 주: 반경 1 km<sup>2</sup> 내 치킨전문점수 대비 인구수 /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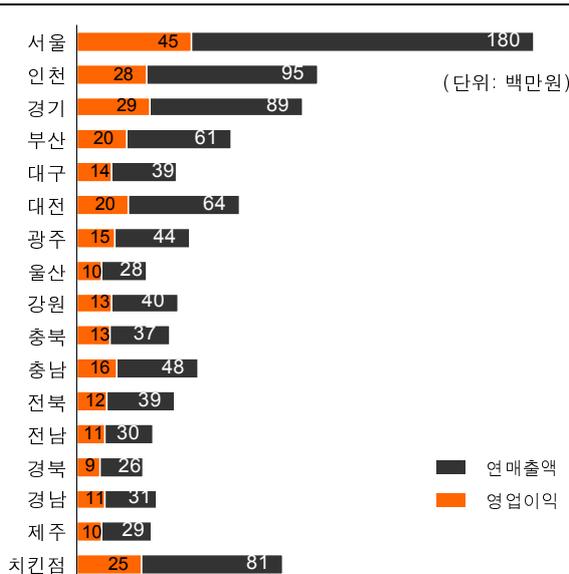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당 영업소득은 수도권 및 부산 양호

- 시도별 치킨전문점 당 평균 영업소득은 서울(45백만원), 경기(29백만원), 인천(28백만원), 부산(20백만원)이 전국 평균 연소득(25백만원)을 상회
  - 시도별 연평균 매출액이 전국 평균치(81 백만원)를 상회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 상대적으로 연평균 영업소득이 작은 곳은 대구, 경남, 경북, 제주, 울산 등으로 모두 경쟁강도(실질수요 기준)가 심화된 지역
  - 부산지역의 경우, 경쟁강도(실질수요 기준)는 3.9 배 증가하였으나, 치킨시장의 매출규모가 17.2 배 증가하며 영업소득 감소분을 상쇄

■ 창업 후 3년 이내 휴·폐업률이 양호한 지역은 경남, 경북, 부산,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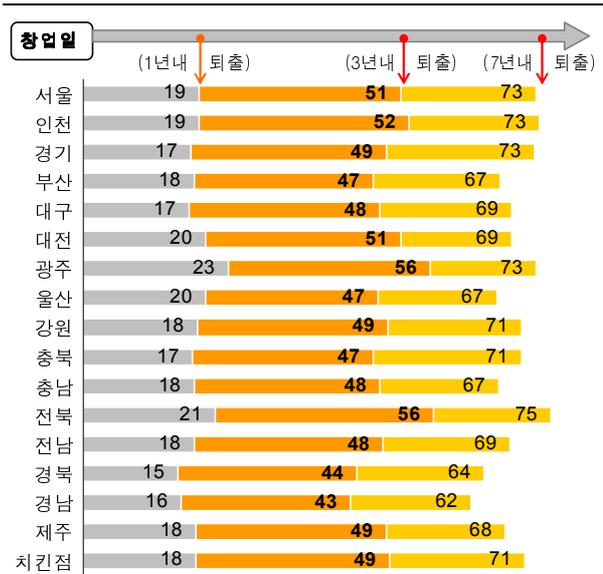
- 2001년 이후 창업한 치킨전문점 중 3년 이내 휴·폐업률이 높은 지역은 전북, 광주, 대전, 서울, 인천으로 전국 평균치(49%)를 상회
  - 반면,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지역은 지역내 매출증가세가 경쟁강도 심화를 상쇄시키며, 치킨전문점 퇴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

[ 시도별 치킨전문점 영업실적(2011년) ]



자료: KB 내부자료, 통계청  
 주: 매출액 및 영업이익 / (단위: 백만원)

[ 시도별 치킨전문점 휴폐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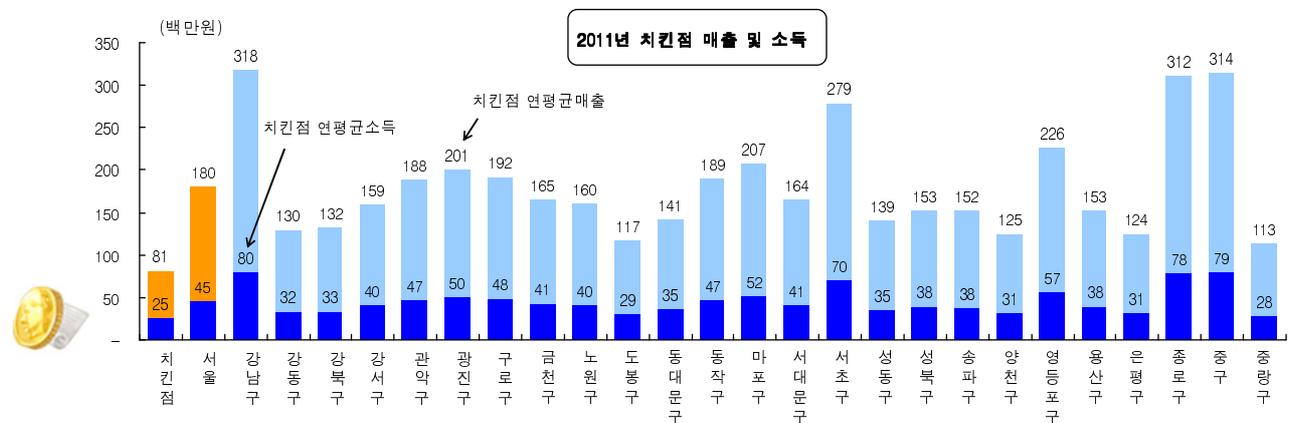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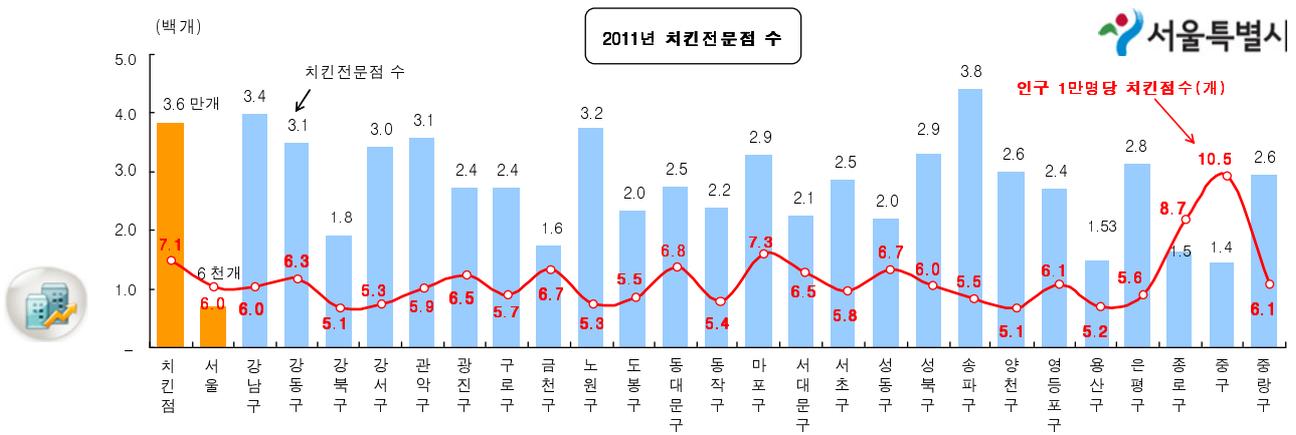


자료: KB 내부자료(2001~2012.7) / 단위: %  
 주: 창업후 영업기간별 휴폐업률

■ 서울특별시 치킨전문점 구별 현황

- 서울시 각 구별 치킨전문점 수가 많은 지역은 송파, 노원, 강남, 관악, 강동 순
- 인구 1만명 당 치킨전문점 수가 많은 지역은 중구, 종로, 마포, 동대문, 금천, 서대문, 광진, 강동 순으로 이들 지역의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치킨전문점 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318백만원), 중구(314백만원), 종로(312백만원), 서초(279백만원)로 서울시 평균 연매출액(180백만원) 상회
- 치킨전문점 당 영업소득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80백만원), 중구(79백만원), 종로(78백만원), 서초(70백만원), 마포(52백만원)로 서울시 평균 연소득(45백만원) 상회
- 연소득이 서울시 평균을 하회한 지역은 중랑, 도봉, 은평, 양천, 강동, 강북으로 조사

[ 서울시 구별 치킨전문점 현황 및 영업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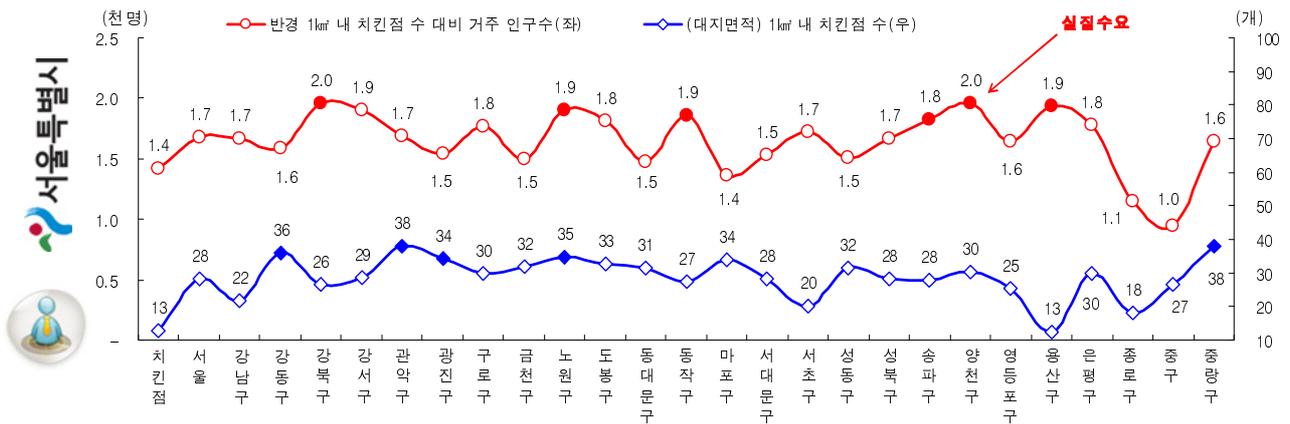


자료: KB 내부자료, 통계청

주: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준 / (단위: 개, 백개, 백만원)

- 서울시 각 구별 반경 1 km<sup>2</sup> 내 치킨전문점 수가 많은 지역은 관악(38개), 중랑(38개), 강동(36개), 노원(35개), 광진(34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치킨전문점 평균(13개)과 서울 치킨전문점 평균(28개)을 상회
- 실질수요(치킨전문점 반경 1 km<sup>2</sup> 내 치킨전문점 수 대비 거주인구수) 기준, 상대적으로 경쟁강도가 약한 지역은 양천(1.96천명), 강북(1.96천명), 용산(1.94천명), 노원(1.90천명), 동작(1.86천명), 송파(1.82천명)로, 이들 지역의 실질수요는 전국 치킨전문점 평균(1.42천명)과 서울 치킨전문점 평균(1.67천명)을 상회

[ 서울시 구별 치킨전문점 실질수요 및 경쟁강도(2011년) ]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기준), 국토지리정보원, KB 내부자료

주: 국토면적에서 지목상 전·답·임야·도로 등을 제외한 대지(주택, 사무실, 쇼핑, 문화시설 등 주요 거주지) 면적 기준, 실질수요(반경 1km<sup>2</sup> 내 치킨전문점수 대비 반경 1km<sup>2</sup> 내 거주 인구수)

### III. 주요 이슈 및 창업 지원정보

#### 1. 치킨시장 주요 이슈 및 추세

##### ■ 치킨전문점 창업 최근 트렌드

- 소득증가 및 건강관심 고조에 따른 웰빙화 추구
  - (조리방식의 웰빙화) 기름기를 제거한 바비큐, 화덕, 오븐 등 굽는 조리방식 도입
  - (치킨재료의 웰빙화) 기존 식용유를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으로 대체
- 메뉴 개발을 통한 다양화 및 퓨전화 추구
  - (메뉴의 다양화) 흑임자·마늘·파 등 건강 식재료로 독특한 맛을 내는 신제품 개발
  - (메뉴의 퓨전화) 파스타, 김치, 쌈 등의 요리와 치킨을 접목시킨 신제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맛과 이색적인 퓨전메뉴로 경쟁력 제고 시도
- 카페형 인테리어 추구(복합화 고급화)
  - 분위기에 민감한 젊은층 흡수를 위해 위생적이며 고급스러운 카페형 인테리어 도입
- 1~2인 가구를 공략한 소량·포장 판매 개시(소량화)
  - 한 마리 단위의 소비가 어려운 1~2인 가구 공략을 위해 반 마리나 부위별 단위의 소량 판매 시도

##### ■ 대형업체들의 해외진출 추세

- 국내 치킨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시도
  -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치킨점들의 해외진출 착수
    - 국내 매장수 1위인 제너시스(BBQ)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 진출하여 350여 점포 개설·운영중
    - 교촌치킨은 중국과 미국 등에 7개 점포를 개설하였으며, 멕시코치킨은 미국에 6개, 중국에 2개점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 업체 증가

- 경쟁과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가맹점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해외진출 가속화 예상
  -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800미터 이내에 신규 점포 개설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 발표
  - 제너시스(BBQ)는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과 현지화된 메뉴 개발로 중국, 미국, 동남아에 이어 남미 지역 진출을 도모하는 등 선도적인 입지 구축
- 한편, 해외진출 확대시 현금 유동성 및 재무 리스크 관리 필요
  - 무리한 해외사업 확대로 적자 누적시 재무적 부담 가중 가능성 상존

**■ 치킨시장 틈새공략으로 경쟁력 제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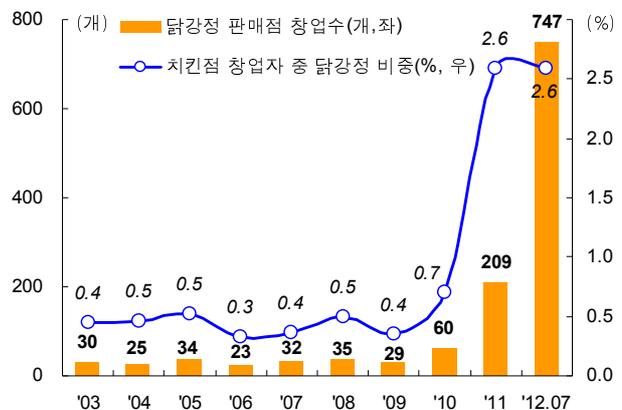
- 치킨산업의 틈새시장 공략과 소비증가에 발맞추어 최근 3년간 닭강정 창업 급증
  - 닭강정 창업 점포수는 2010년 60개에서 2012년 7월 기준 747개로 12배 증가
  - 닭강정 산업은 독특한 맛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다는 특징과 소규모 포장 및 배달을 통해 1~2인 가구 공략에 용이하며, 간단한 메뉴구성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배경으로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부각
- 다만, 향후 점포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시 수익 저하 및 구조조정 가능성 예상

[ 치킨전문점 해외 진출 현황 ]

치킨점	해외진출 현황
BBQ	미국, 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 총 350여 개 점포 운영중
굽네치킨	준비중
교촌치킨	중국, 미국 등 총 7호점
네네치킨	싱가포르 1호점 (2014년까지 20호점 목표)
멕시카나	미국(6호점), 중국(2호점)
페리카나	동남아 지역 등 오픈 예정

자료: 각 언론사 보도(2013. 1 기준)

[ 닭강정 전문점 현황 ]



자료: KB 내부자료(2003~2012.7)

## 2. 치킨전문점 창업 지원정보 및 준비사항

### ■ 향후 국내 치킨시장은 경쟁강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

- 국내 치킨시장은 외식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3.1조원 규모로 성장
- 청년층 취업난과 인구 고령화로 20대와 50대 창업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선호 및 소자본 창업의 장점에 힘입어 개인사업자들의 커피전문점·편의점·제과점·치킨전문점 등에 대한 창업 열기는 지속될 전망
  - 매년 74 백개의 치킨전문점이 신규 진입하여, 매년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약 23 백개씩 증가
- 최근 수요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치킨점이 증가하면서 실질수요(점포 반경 1km<sup>2</sup> 내 치킨점 수 대비 거주인구수) 감소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가 서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 치킨전문점 창업 후 3년 이내에 휴·폐업 하는 비율이 절반(49.2%) 가까이 되며, 창업 10년 이후 최종 생존확률은 20.5%에 불과
- 연말 영업 중인 치킨점 중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은 23%, 퇴출된 구성원은 21%로 산업내 구성원 변동이 전체의 44%에 달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안정성을 보임

#### [ 국내 치킨시장 주요 정보 ]



자료: KB 내부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생존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창업 전 충분한 준비 및 고유 경쟁력 확보 필요

- 치킨전문점 창업 후 평균 9백만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며, 무급가족 종사자를 감안할 경우 실질소득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비창업자들은 자금조달 계획 및 손익분기점 등을 정확히 감안하여 창업에 임할 필요
- 예비 창업자들은 치킨시장의 생존확률이 이미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산업내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웰빙화·다양화·소량화·복합화 등 최근의 추세를 감안한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와 고유한 아이템 창업 필요
- 개인사업자 창업시 창업준비 부족, 업종 쏠림현상, 부채 및 고정비 부담 등 고질적인 부진 요인이 상존하므로, 예비 창업자들은 정부, 지자체, 금융권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sup>9</sup>(자금·교육·컨설팅·경영 및 기술 지원 등) 및 정보<sup>10</sup>(상권분석, 고객분석, 창폐업 및 영업 실태 분석 등)를 창업 전에 적극 활용하여 성공 확률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 필수

집 필 진

책임연구원 유정완(jungwan.you@kbf.com) ☎ 5749

연구원 김홍태(hongtae.kim@kbf.com) ☎ 5789

팀 장 김일광(ilgwang.kim@kbf.com) ☎ 5535

<sup>9</sup>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 중앙부처 7개 기관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개별 지자체도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

<sup>10</sup> 주요 창업관련 정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상권정보시스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영업 관련 각종 보고서(KB SOHO 분기보고서,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월간산업동향 등), KDI(영세사업자 실태분석), 통계청(경제총조사) 등